116

3 - AUG - 9
Copy 1960

소년단

1959, 2

시

좋구나 우리의 하루 하루는

리 맥

아침마다 붉은 넥타이 펄펄 날리며
너희들은 날마다 학교로 간다
어깨동무 손잡고 노래 부르며

해'님도 너희들께 기쁨 보내오누나
바람도 너희들께 기쁨 속삭이누나
아이들아 어서어서 잘 자라서
어서어서 조국의 기둥되라고

머리 우에 소년단기 펄펄 날리며
너희들은 봄이 오면 행군을 떠난다
온 몸엔 힘 솟고 가슴은 넓어 지누나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
참 좋구나 한 눈에 보이는 기름진 들판
참 좋구나 힘차게 뻗어간 나라의 철탑

높고 높은 공장 굴뚝 우리를 부르누나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우리를 부르누나
아이들아 어서어서 잘 자라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되라고

아이들아 물어 보자
어찌하여 우리들은 언제나 기쁠가
어찌하여 우리들은 언제나 즐거울가

하늘이 좋아서?
땅이 좋아서?
아니 아니 그래서만이 아니라네

로동당이 우리 앞길 해'빛처럼 빛쳐주고
김 일성 원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주권을 인민이 튼튼히 쥐였나니
우리 모두 나라의 주인된 때문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2호 내용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2)
어린 혁명가들 .... 백 학림 (4)
혁명의 기'발 .... 한 창수 (9)
용감한 형님 누나들의 발자국
영원히 살아 있는 이름! ....(10)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11)
고맙습니다 ....(14)
나는 조국으로 돌아 가고 싶다......(16)
편지: 축하를 드립니다 ....(17)
비둘기가 물고온 소식 ....(18)
사진 화보: 공산주의 만세! ....(20)
안된다! ....(22)
우리들의 힘으로 400톤을! ... 최 옥선(24)
련재만화: 영남이와 순옥이 ... 원 광수(24)
만화: 이런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28)
마양도의 불'빛 .... 채 규철(30)
척척 할아버지 ....(33)
처음 듣는 새 소식(2건) ....(34)
유희: 얼음판 우에서의 유희 ....(36)
로케트 려행 (6) ...... 남 현주 그림(38)
현상 문제 ....(40)

표지: 1면 혁명투사 백 학림 선생님을 모시고
4면 신의주 녀고중 초급반 조 문자동무
촬영 리 종록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것은 소년단원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가 우리들 소년단에 준 새 구호입니다.

소년단의 새 구호! 이것은 소년단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성하며 당과 민청의 대를 이여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 될 것을 바라는 크나 큰 기대와 희망이 스며 있는 영예로운 당의 부름입니다.

따라서 이 구호는 로동당의 가르침을 따라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소년단의 굳세고 뜨거운 맹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년단의 새 구호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으뜸가는 임무를 깨닫게 하여주며 공산주의의 나어린 투사라는 소년단원의 영예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이 새 구호를 부르면서 우리의 집단에 더욱 튼튼히 단결해야 하며 소년단 생활에 더 잘 참가 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구호 실천에서 참으로 자랑찬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는 소년단의 엄숙한 구호를 자기의 생활에서 훌륭히 꽃피운 많은 선배 형님들과 누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 수복, 박 원진, 림 돈욱, 최 동근, 리 정수 등 수 많은 공화국 영웅들은 모두 지난날 소년단원으로서 당이 준 구호를 빛나게 수행한 우리 조선 소년단의 크나큰 자랑들입니다.

소년단의 구호에 충직하였던 까닭으로 그 분들은 훌륭한 민청원으로 훌륭한 로동당원으로 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간 우리 나라는 참으로 몰라 보게 발전 하였습니다. 즉 우리 나라는 지난날의 뒤떨어진 농업 국가로부터 오늘엔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향하여 세월을 줄음 잡아 당당히 앞으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이 지도하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가 내 놓은 찬란한 공산주의 건설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은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의 주인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들인 소년단원들에게 당과 민청의 대를 이을 붉은 전사로 공산주의의 어린 투사로 힘차게 자랄 것을 호소하는 새 구호를 준 것입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는 곧 당의 대를 이을 어린 공산주의 붉은 투사들의 부대라는 영예롭고도 자랑찬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년단원들은 당이 준 새로운 소년단의 구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빛나게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구호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된 당의 아들 딸로 훌륭하게 자라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만큼 소년단원들은 무엇 보다도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15개 성상의 피어린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성실하게 배우며 모범 받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오늘의 큰 행복과 래일의 자랑찬 희망도 모두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지난날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

자들의 피어린 혁명 투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아가서는 해방 후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옳바른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참된 당의 아들 딸들인 혁명 투사들처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모든 고난과 애로를 뚫고 나아 가는 불굴의 혁명 정신을 길러 나아가야 합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높은 과학과 기술을 가진 쓸모 있는 일'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이것은 높은 과학과 기술을 떠나서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쏘련의 과학이 열어 놓은 우주에로의 려행을 준비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 형님 누나들에 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매일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로동당원들과 그 뒤를 따르는 민청원들이 이룩하여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훌륭한 성과를 물려 받아 그를 더욱 빛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성실히 학습하며 이를 실지 생산 활동을 통하여 더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과학과 새기술로 무장한 지식있고 재간있는 참된 일'군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지식있고 쓸모있는 기술 일'군으로 훌륭하게 준비되면 될 수록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은 그만큼 더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소년단의 구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할 공산주의자다운 아름다운 도덕품성으로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모든 행동의 거울로 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무들을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웃사람을 존경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그 어데서나 자기 몸과 생활을 단정히 꾸리며 옳은 것은 지지하고 그릇된 것에 대하여는 용서 하지 않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는 참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항상 례절 있고 문명한 공산주의 건설자다운 참된 품성으로 자기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체 소년단 단체들과 소년단원들은 당이 준 소년단의 새 구호를 받들고 자기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때나 소년단 단체는 소년단원들이 우리 당을 따르고 사랑하게 하며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게하며 소년단 조직을 전투적이고도 규률 있는 공산주의 어린 투사들의 집단으로 되게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매개 소년단원들은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소년단의 위임을 항상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다진 엄숙한 맹세를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고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애국 정신이 깃들어 있는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의 영예를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되기 위하여 믿음직하게 꾸준히 준비 합시다!

어린 혁명가들

백 학림　　　　그림 유 환기

나는 지난 날의 아동 혁명단원이 였던 나의 어린 시절과 옛 전우들의 어린시절들을 가끔 회상하군 합니다. 이제 그때의 한 두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1931년에 아동 혁명단에 입단하였는데 그때 청년단 형님들이 우리들을 직접 지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도원 형님들이 지시하는 시간에 마을에서 떨어진 비밀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놈들은 왜 우리의 원쑤인가》

《우리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우리는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가》

《쏘련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원쑤를 짓 부수기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우리들은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원쑤를 처물릴 결심으로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통신 련락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일제 원쑤놈들의 감시가 심하여 어른들은 마음 놓고 다닐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동들도 통신 련락을 하는 일이 헐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적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하 공작원들에게 비밀 련락을 하는 것이니까요. 잘못하여 놈들에게 발각되기만 하면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도 될 수 있으며 유격대의 비밀이 탄로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 련락을 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신 련락을 장난이나 또는 놀러 다니는척하면서 수행하였습니다. 참대나 막대기 속을 파서 그 속에 얇은 종이에 쓴 편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였습니다. 어떤 때는 수수깡 속을 파내서 그 속에 편지를 넣고 말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두 다리 사이에 수수깡 말을 끼우고 《이랴 낄낄》하며 달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먹는 엿 속에다 편지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적들에게 들리우면 외가'집에 간다고 슬쩍 둘러 대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단원인 송 명직 동무는 어느날 중요한 통신 련락 임무를 맡아 가지고 적들의 통치 구역안에 있는 지하 공작원을 찾아 가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갑짜기 일본 순사놈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갑짜기 원쑤놈을 만났기 때문에 무척 급해났습니다. 순사놈은 반드시 명직이를 붙들고 몸을 뒤져볼 것이며 만일에 편지가 발각되는 날이면 큰 일입니다.

명직이는 어느듯 옷깃에 숨겼던 편지를 꺼내 입속에 넣고 꿀꺽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순사 놈은 명직이 앞에 우뚝 서더니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뭐하러 가는 놈의 새끼야》

《담배 사러 가댔습니다》

하고 명직이는 허리를 굽실하며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거짓 말이나 하지 말아》

순사 놈의 손'길은 어느듯 명직이의 뺨에 날아 들었습니다.

《너 입에다 무엇이나 넣었나, 입 벌려라》

명직이는 입을 벌리고 순사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순사놈의 얼굴은 악귀와 같이 보였습니다. 순사놈은 긴 손가락을 명직이 입에 넣더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명직이는 꽉 깨물어 주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 났으나 꾹 참았습니다. 순사놈은 명직이에게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사놈은 명직이를 붙들어 갔습니다. 붙들려 간 명직이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명직이는 무수한 매를 맞으면서도 단원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지도원 형님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원쑤놈은 누구의 무슨 련락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댔느냐고 대라고 을러댔습니다. 그러나 명직이는 끝내 비밀을 대지 않았습니다. 명직이에게서는 아무런 비밀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한 순사놈은 일주일만에 놓아 주었습니다.

명직이는 피투성이가 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입단할 때에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끝내 지켰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명직이가 붙들려 간 것을 알고 걱정하던 지도원 형님과 그의 부모들의 기쁨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날 밤 지도원 형님은 다른 단원들을 모아 놓고 비밀 장소에서 명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무척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단원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마을이나 유격 근거지를 토벌하기 위하여 오는 원쑤놈들을 감시하는 일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나와서 보초를 서면 곧 원쑤놈들의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단원들은 놈들의 눈을 속일 수 있였습니다.

마을에 유격대원이나 지하 조직원이 들어오면 마을 주변에 서고 신호를 해줍니다. 낮에서는 붉은 기와 흰 기로 신호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새 소리로 신호를 하기도 하고 마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무

가지를 꺾어 그 소리로 신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아동 단원인 김 봉남 동무는 다른 단원 한 명과 감시를 서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산 비탈 길로 일본 순사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큰 일 났습니다. 만일에 마을에 급히 알리지 않으면 련락 왔던 공작대원 아저씨가 들리울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공작대원 아저씨는 붙들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을은 큰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주리 잡아가고 불을 놓을 것입니다.

이때에 김 봉남이의 머리에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봉남이는 다른 단원 동무에게 눈짓을 하고 와락 달려들어 뺨을 갈겨대고 달아났습니다. 매를 맞은 단원 동무도 눈치를 채리고 마치 싸움이라도 하던 것처럼 울면서 돌맹이질을 하면서 쫓아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놈들에게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않고 마을로 뛰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달려 가서 공작대원 아저씨에게 왜놈이 온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공작대원 아저씨는 어느듯 뒤로 빠져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왜놈들은 얼마 후에 마을에 들어 와서 샅샅이 뒤져 보았으나 마을에서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순사놈들은 애매한 사람들을 마구 손 닿는대로 때리더니 닭을 몇 마리 잡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동 단원들은 풀 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곤난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곤난하여도 앞으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찾고 반드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들에게 붙들려 가서도 놈들에게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놈들에게 애처럽게 희생된 동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에는 살아 도망쳐 나온 동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황 정해 동무도 아동 단원이였는데 왜놈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황 정해 동무는 얼굴도 고왔고 아주 영리한 동무였습니다. 왜놈들은 정해를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심부름'군애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황 정해 동무는 자기의 정신을 잃지 않고 언제나 유격대원 아저씨들과 마을의 혁명투사들과 아동단원 동무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시키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뜨락과 방 소제도 해주고 차도 끓여다 주었습니다. 황 정해 동무의 마음 속을 알지 못하는 왜놈들은 정해 동무를 점점 신용하게 되였습니다. 정해 동무는 놈들이 있는 방에도 자유로 드나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종에는 무기 창고에도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정해 동무는 왜놈들의 부대 정형을 모두 알아 냈습니다.

기관총이 몇개이며 장총이 몇개이며 부대 대원이 몇명이며 어느 곳에 어떤 무기를 장치했는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후에는 정해 동무를 자기네들의 구역 밖으로도 내보냈습니다. 이런때에 물론 도망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부대장놈은 정해 동무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부대장놈은 유달리 기분이 좋아하며 부하놈들과 만취가 되도록 술을 처먹었습니다. 술에 취한 놈들은 이구석 저구석에 쓸어저 정신 없이 코들을 골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던 황 정해 동무는 부대장놈의 방에 들어가서 무기를 꺼내 가지고 살짝 나왔습니다. 그는 전부터 잘보아 두었던 골목으로 빠져나와 유격 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것으로만 알았던 동무가 돌아왔을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가지고 왔으니 유격대원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비록 심부름'군이였으나 정해 동무는 놈들속에 있으면 잘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곤난한 행군, 생명의 위험이 련달아 찾아드는 유격 근거지로 그가 왜 돌아 왔겠습니까? 정해 동무는 모든 아동단원들과 같이 자유없는 호강은 바라지 않았으며 저주로운 왜놈들 앞에서 죽어도 굴하지 않으며 투항하지 않으려는 슬기로운 정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동단원들은 어떠한 어려운 일과 위험이 있어도 동무들을 배반하여 편안히 살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빨리 커서 왜놈를 무찌르는 싸움에 유격대원들처럼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참가하기 위해 준비 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동 혁명단원의 대부분은 커서 김 일성 원수가 지도하시는 유격대오에 참가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무기를 다루기 힘에 겨웠으며 전투는 고사하고 따라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힘겨워하면 선배 동무들의 짐이 될가바 그런 내색을 안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벌써 김 일성 원수님과 많은 유격대원들은 이

기색을 알아차리고 먼저 배낭을 지어 주며 무기를 메여 주는 등 눈물 겨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시군 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틈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쏘련에 대하여》 《레닌 선생에 대하여》 그리고 꿈에도 잊지 못할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일성 원수님은 《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가》를 차근 차근 이야기하여 주시군 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거듭 말씀 하시였습니다.

자기 리익보다 집단과 혁명의 리익을 맨 앞에 내세우며 혁명과 군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상,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여 나아가는 강철의 투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혁명 투사의 대렬—아동 혁명 단원들은 행복의 락원, 바로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위하여 항상 당과 김 일성 원수의 지도하에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생명으로 자기 임무를 지켜 왔던 것입니다.

혁명의 기발

—소년단원 출신 리 정수 영웅에 대한 이야기—

한 창 수

그림 류 경 수

1953년 6월 어느날! 351 고지를 점령하라는 전투 명령을 받은 리 춘발 대대는 어둠을 타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 대렬 속에 열 여덟살의 나어린 분대장인 리 정수도 끼여 있었다.

작달막하나 다부진 몸집이며 쩍 벌어진 가슴이 나이보다는 퍽그나 믿음직하게 보이는 리 정수 분대장은 마침 내리기 시작한 비'물로 얼굴을 닦으며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둔 밤에 비를 맞으며 40키로그람이나 되는 짐을 지고 남강을 건느고 벼랑을 오르려니 정수는 온몸이 땀속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조금도 힘든줄 몰랐다.

—이번의 전투야 말로 조국의 아들답게 로동당원 답게 싸울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정수의 마음은 자꾸만 부풀어만 올랐다.

351 고지까지 150메터쯤 되는 북쪽 무명 고지에 도착해서는 세포 회의가 열리고 군무자 회의가 열렸다.

큰 전투를 앞둔 군무자 회의의 자기 자리에 앉은 정수는 문뜩 고향의 금천강이며 성진 제강소에서 보내던 즐겁던 로동 생활등이 련달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였다.

이와 함께 정수의 눈 앞에는 인민 학교와 초급 중학교에서 보낸 즐겁고 행복했던 소년단원 시절이 아련히 떠올랐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는 분단 벽보를 도맡아 만들군 했다. 또한 그는 소년단 분단 위원으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도 모범이였다.

본시 부지런하고 한번 마음 먹은 일이면 꼭 해내고야 마는 정수의 굳센 의지는 소년단 생활을 통하여 더욱 굳어져 갔다.

더우기 선생님들이 들려준 김 일성 원수께서 지도하신 아동 혁명단원들의 이야기는 나어린 정수의 마음에 혁명을 위해 몸바쳐 싸우려는 불타는 정신을 키워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 하 여

조국의 력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긴 리 수복 영웅은 소년단에서, 그다음에는 민청에서 자랐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고향을 사랑했고 학교와 동무를 사랑하였다. 리 수복 영웅은 소년단 생활을 하면서 민청 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항일 유격 투사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었다.

리 수복 영웅의 이같은 마음은 그로 하여금 원쑤를 무찌르는 싸움에서 영웅성을 발휘케 하였다.

1951년 10월 29일! 리 수복 영웅은 1,211고지 옆 《무명 고지》 습격 전투에서, 불을 뿜는 원쑤의 화구를 자기의 가슴으로 막아 아군의 돌격로를 열어 놓았으며 승리를 보장케하였다.

우리는 그가 돌격초로 떠나면서 수첩에 적어 놓은 그의 마지막 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주었다.

왜놈들에게 붙잡혀 사형장에 끌려 가면서도 끝내 빨찌산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켜낸 슬기로운 아동 혁명단원들의 이야기며, 눈보라 속에서 이틀 사흘을 굶으면서도 빨찌산의 련락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수 많은 어린 혁명 투사들의 이야기는 정수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은 것은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나도 아동 혁명단원들처럼 용감한 혁명 투사가 되리라!》하고 굳게 결심하군 하였다.

분단에서는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과 아동 혁명단원들의 투쟁을 그린 그림을 그려 교실이나 소년단실에 붙이군 했는데 그때마다 정수가 그린 그림이 으뜸이여서 선생님들에게서 늘 칭찬을 받군 했다.

이 모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정수의 마음 속에는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귀중하고 귀중한 그 모든 것을 준 당을 위하여, 김 일성 원수님을 위하여 이 한몸을 바치리라!》

정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토론대에 나섰다.

《…이 엄숙한 순간에 나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예스러운 로동당원입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운 전투 임무라도 기어코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혁명 투사들의 모범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전투 임무에 충실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조국의 아들로써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의 전사로써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전투 임무를 나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어떤 어려운 전투 임무라도 수행하겠습니다. 내 몸뚱이를 그대로 던져서라도 나의 임무는 완수하고야 말겠습니다…》

장내는 요란한 박수소리로 들끓었다.

최고 사령관에게 드리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정치 부중대장이 공화국 기'발을 들고 나왔다. 전투원들은 351고지에 공화국 기'발을 꽂을 영예스러운 임무가 누구에게 내릴것인가 하고 수군거렸다.

《1소대 1분대장 리 정수 동무!》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정수는 기'발을 받자 기폭에 자기의 뜨거운 입술을 댔다. 원쑤의 발굽에서 해방될 351고지에 휘날릴 영광의 기'발, 혁명의 기'발에 자기의 붉은 피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공격 시간은 각각으로 다가왔다.

령시 15분! 드디어 공격 명령이 내렸다.

월비산과 구선봉 뒤에 있는 우리 포들은 벌써 노호하기 시작했다. 전투원들은 호랑이처럼 앞으로 내달았다. 기미를 알아차린 적들은 포와 중기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땅이 뒤집히고 포연이 앞을 가리웠다.

《351고지에 공화국 기'발, 혁명의 기'발을 휘날리자!》

정수는 이렇게 목청껏 웨쳤다.

전투원들이 웨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왔다. 하늘과 땅이 온통 몸부림을 쳤다.

갑짜기 조명탄 여덟개나 걸리며 351고지는 대낮과 같이 밝아졌다. 정치 부중대장이 구호를 웨치다가 적탄에 쓰러졌다. 3분대장은 지뢰를 밟았다. 그는 엎드려지면서도 《1분대장 동무, 부탁하오!》 정수에게 말하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다.

《동무들! 351고지로! 351고지로!》

용감한 우리 형님 누나들의 발자국

영원히 살아 있는 이름!

서 강렴 동무는 조선 소년단이 낳은 수많은 어린 애국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미제 원쑤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 고원 빨찌산의 소년 정찰병으로 용감히 싸우던 서 강렴 동무는 그만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미군 《씨 아이 씨》에 끌려 가는 서 강렴 동무에게는 빨찌산으로 떠나면서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 올랐다.

《우리는 적 후방에서 싸운다. 너도 로동당원의 아들답게 소년단원답게 살아야 한다》.

눈앞에 김 일성 원수님을 그려보며 항일 유격 투사들을 생각하는 서 강렴 동무에게는 새힘이 솟았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빨찌산의 비밀을 끝끝내 지켜 내였다. 총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웨친 어린 애국자 서 강렴 동무의 심장의 노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 있을 것이다.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놈들의 가슴팍에 복쑤의 총칼을 꽂을 수천 수만의 영웅적 인민이 있다. 그 선두에는 김 장군이 서 계시다. 로동당의 기'발이 우리의 승리를 불러 주고 있다. …》

놈들의 총알에 맞아 쓸어지면서도 서 강렴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또 이렇게 속사겼다.

《장군님! 김 일성 장군님, 나는 조선 소년단원으로써 자기의 임무를…다하였습니다》

그렇다! 서 강렴 동무는 자기의 짧은 일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 소년단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서 강렴! 그 이름은 조선 소년단원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정수는 련속 이렇게 웨치며 달렸다. 그 순간 정수는 왼팔이 뒤로 획 날림과 함께 선뜻함을 느꼈다. 탄환에 맞아 피가 손'등으로 흐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앞으로 내 달렸다.

남쪽 무명 고지로 통하는 교통호를 차단하고 정수가 앞으로 달리려니 세개의 적 중기가 불을 뿜고 있었다. 한발도 전진할 수 없었다. 정수는 바짝 엎드렸다.

《로동당원이 돌파 못할 요새는 없다. 로동당원은 앞으로!》이런 날카로운 음성이 정수의 귀'전에 울려 왔다. 퍼뜩 그의 머리에는 암담하던 지난날 만주 벌판과 조국땅에 붉은 피를 뿌리며 싸워 이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불굴의 혁명 투사들의 모습이 떠 올랐다.

《그렇다! 나는 애국적 혁명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 전사가 아닌가!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혁명이 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정수는 속으로 웨쳤다. 그리고 더 무서운 힘과 용기가 소용도리 치는 것을 느꼈다.

《화구를 까자!》정수는 옆에 있는 김 인택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그리고는 화구를 향해 내달으려 했다. 그러자 정수는 자기의 손에 쥐여진 기'발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 기'발은 어떻게 든지 세워야 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인택이가 보이지 않았다. 인택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자기의 몸을 화구에 던졌던 것이다. 화구는 멎었다. 그러나 오른쪽 화구에서는 여전히 불을 토했다. 정수는 그 화구를 향해 기여갔다. 수류탄을 던졌으나 맞지 않았다. 다시 기여가려 할 때《분대장 동무! 351고지에 기'발을, 기'발을 꽂아주시오》한 분대원인 김 용택의 음성이 옆에서 나는 듯 하더니 화구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인택과 용택이의 고귀한 최후를 알았다. 정수는 두 전우가 열어준 길을 정신 없이 달렸다.

수류탄과 포탄은 그대로 앞을 막았다.

인택과 용택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정수는 또 내달았다. 폭풍에 날리면 몸을 이르키면서 그대로 달렸다.

갑짜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눈앞이 훤히 열렸다. 그제야 정수는 달빛에 비치는 동해 바다를 보았으며 351고지의 정점인줄 알았다. 이미 정점에는 적도 없었으며 전우들도 없었다. 그러나 적의 포탄은 고지 정점에로 련달아 떨어졌다. 정수는 기'발을 꽂으려고 팔에 감은 것을 풀면서 전우들을 불렀다.

《정점으로, 빨리 빨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수는 폭풍에 날렸다. 몸은 포탄 구뎅이에 떨어졌으며 오른손에 기관 단총만이 쥐여 있었다. 기'발이 없는 것을 알자 소스라쳐 놀랐다.

5메터 쯤 앞에 있음을 알고 급히 기여가려니 또 폭풍이 몰려왔다. 기'발이 다시 보이지 않았다. 배밀이를 하여 한동안 찾아서야 기'발을 잡았다. 한쪽 떨어진 자리에 끈을 달려니 이번은 더 강한 폭풍이 휩쓸어와 그를 날렸다. 그의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몸을 쓸 수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일어나긴 했으나 팔을 조꼼도 놀릴 수 없었다.

이때 정점에 올라온 소대 위생병이 등을 내밀며 업힐것을 요구하였다.

《아직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소》정수는 이렇게 말하며 기'발을 다시 매려는데 그는 위생병과 함께 또 날렸다.

정수는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지는 중에도 기'발을 찾을 생각 뿐이였다. 포탄이 떨어지건 말건 사방을 더듬어 기'발을 찾았다.

이때 중대 민청 위원장이 이곳에 당도했다.

《1분대장 동무, 빨리 내려가시요》하며 민청 위원장은 정수에게서 기를 억지로 빼앗았다. 정수는 위생병에게 업혀 세발째 옮기고는 위생병의 등을 떠밀며 땅우에 떨어졌다.

《난 죽어두 351고지에서 죽겠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소.》

이때 민청 위원장이 적의 포사격에 희생되였으며 기'발은 정수옆에 떨어졌다.

정수는 날쌔게 기'발을 집어 들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팔을 놀려 보았다. 팔은 신기하게도 놀려졌다. 그는 번개같이 손을 놀려 기'발을 세우고 말았다. 바다'바람에 펄럭이는 기폭이 정수의 뺨을 가볍게 스칠때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인택이와 용택의 피로써, 수 많은 전우들의 피로 세운 이 혁명의 기'발이 한없이 귀중했다.

바다 쪽에서 갑짜기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기'발은 바람을 안고 힘차게 나부꼈다.……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 용사들은 적 1,860 여 명을 살상 포로하고 적들이《요새》라고 장담하던 351고지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이 전투에서 수 많은 영웅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리 정수 분대장과 김 인택이도 들어 있었다.

× × ×

리 정수 영웅은 지금 그가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일하였고 가렬한 싸움의 나날에도 잊을 수 없었던 성진 제강소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

그는 신조강 직장 건설을 맡은 청년 돌격대장으로 《조국에 더 많은 강재를 바치라!》는 당의 목소리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힘과 재간을 바치고 있다. 지난날의 소년단원이였으며 오늘은 로동당원으로 청년 돌격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리 정수 영웅은 자기를 길러 주었고 자기에게 행복을 준 당과 김 일성 원수의 참된 전사—공산주의 전사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동무들! 2월 28일은 시, 군 (구역)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지금 선거의 날을 앞둔 우리 나라 각지 소년단원들은 무한한 기쁨과 자랑을 안고 《꼬마 선전대》를 조직해 가지고 거리와 마을에서 눈부신 선거선전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동당이 앞길을 밝혀 주는 나라—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이 마음껏 배우며 마음껏 뛰여 놀고 있는 소년단원들의 어린 가슴들은 오늘의 큰 행복 큰 기쁨을 안겨준 우리의 인민 정권에 대한 끓어 넘치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조국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무엇이건 원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워 지리라!》라고…

그렇습니다! 인민 정권의 따뜻한 품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마음다진 모든 것이 이루워지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 정권은 날에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품에 안긴 우리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생활이 무지개처럼 뻗치고 있습니다.

인민 정권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두터운 배려는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간고했던 전쟁이 끝나기도 바쁘게 인민 정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들에게 해'살 밝은 아름답고 웅장한 학교를 지어 주었습니다.

송진 냄새 풍기는 새 책상에서, 흰벽에 유리창이 으리으리한 새 교실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던 때의 감격은 아마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는 새과학 새지식을 마음껏 배울수 있는 훌륭한 실험실 공작실들이 차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뛰여 놀 수 있는 아동 예술 극장과 수많은 아동 공원들이 있으며 머지않아 평양과 개성엔 세계에 자랑할 웅장한 아동 궁전도 차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해마다 즐거운 여름이 오면 어린이들은 산좋고 물맑은 명승지들과 푸른 파도 출렁이는 시원한 바다'가 야영소로 떠납니다. 어린이들은 여기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의 한때를 보냅니다. 더욱이 우리를 래일의 희망으로 불타게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누구나 다 초중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와 앞으로 4~5년내에 전반적 기술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머지 않아 우리 나라 인민은 누구나 다 지식있고 문명한 인민으로 된다는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오직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인민 주권이 있기 때문임을.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인민 정권의 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민 정권은 항상 해'빛처럼 따스한 손'길로 우리 어린이들을 보살펴 줍니다.

인민 정권은 더울세라 추울세라 항상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걱정해 줍니다. 그리하여 얼마전에는 어린이들이 추워하지 말라고 훌륭한 모직 의투와 솜 외투들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주와 자본가놈들의 밑에서 가난과 천대속에서 살아오던 지난 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둥지를 틀고 앉은 남반부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행복이 크면 클 수록 오늘의 참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일제를 반대하여 피흘려 싸우신 김 일성 원수님의 항일유격 투사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조국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해 김 일성 원수님은 갖은 고난과 어려움도 박차고 오직 승리를 향해 나아 갔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혁명 투사들이 오늘을 위해 피흘려 쓸어졌던가!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혁명 투사들의 앞을 가로 막았던가!

그러나 김 일성 원수님의 유격부대들은 오직 참된 인민의 정권인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찾기 위해 싸워 이겼던것입니다.

이처럼 피흘려 찾은 귀중하고 또 귀중한 우리의 인민 정권이기에 지난 날 미제 원쑤놈들이 우리의 인민 정권을 빼앗으려 덤벼들었을때도 인민들은 한결같이 목숨으로 우리의 정권을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인민 정권은 원쑤놈들의 어떠한 힘으로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동무들! 우리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들입니다. 우리들은 래일의 인민 정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민 정권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그를 철옹성 같이 지켜 나가는 슬기로운 혁명 투사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인민 정권은 우리의 행복이며 희망이며 힘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희망은 오직 인민 정권의 품속에서만 활짝 피여날 수 있으며 열매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 래일의 인민 정권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나아가는 참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더 잘 준비해 나아 갑시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 귀국할 것을 원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 소년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마음을 조국에 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아마가자끼시 소노다 조선인 초급 학교 소년들로부터 자기들의 작품집 《동산》을 보내여 왔다. 그 작품집에서 두편을 골라 아래에 소개한다.

조 국

일본 아마가자끼시 소노다 조선인 초급 학교
제 5학년 리 종효

조국 조국 우리 조국
금수 강산 아름다운
우리 조국
나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리운 우리 조국
우리를 따뜻이 돌봐 주는
우리 조국
일본 땅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의 교육을 걱정하여
교육비 보내 주신
우리 조국
미제와 리 승만의 침략을 물리치고
웅장히 건설되는
자랑찬 우리 조국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의 행복이 약속된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우리의 조국이란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본 아마가자끼시 소노다 조선인
초급학교 제 6학년 전 득자

내가 어릴 때 우리는 아마가자끼 오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처음 오시마 조선인 소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2학년 때는 오사까에 이사했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쇠장사를 하시게 되면서 아마가자끼 간자끼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 간자끼 강이 흘러 내리는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오기 전에는 남의 창고 였는데 집 없는 사람이 림시 있다가 새로 집을 사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해 왔으니 집은 말할 수 없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이 하루 종일 걸려서 방과 창문을 만들어 방같이 되였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뚫어져서 하늘이 보입니다. 전기'불도 없어 밤에는 석유 등잔을 씁니다. 여름에는 해'빛이 쨍쨍 쬐여 집을 둘러싼 양철이 뜨거워 집안은 더운 물을 끓이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몹시 춥습니다. 비가 올때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소리 맞추는것 같고 바람 불때도 몹시 분주합니다. 이런 집도 집이라고 집 주인은 방세를 비싸게 받아 갑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애쓰고 집을 고쳤는데 나가라고 하니 너무 무정합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운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돌아 가야 한다고…

나는 정말 조국으로 돌아 가고 싶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에게!—

친애하는 모쓰크바 제 711호 학교 삐오네르 동무들! 새해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력사적인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 차 대회를 맞는 쏘련 인민들과 동무들에게 우리 학교 전체 소년단원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들과 함께 공산주의 광활한 락원을 펼쳐 줄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차 대회를 커다란 기쁨과 자랑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무들!

우리들은 매일과 같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동무들의 나라 위대한 쏘련에서 이룩되고 있는 여러가지 훌륭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무한한 흥분과 감격에 휩싸이군 합니다. 더욱이 제 1, 제 2, 제3 인공 위성에 뒤이여 1월 2일에 동무네 나라에서 우주 로케트를 쏘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도 기뻐 어쩔줄을 몰랐답니다.

어떤 동무들은 벌써 달나라 려행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동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큰 자랑이며 큰 기쁨입니다.

과연 위대한 쏘련은 세계 일등가는 행복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일등가는 과학의 나라입니다. 이 빛나는 성과는 우리들에게 보다 즐겁고 행복할 래일의 세계로 나래쳐 가게 하여 줍니다.

친애하는 삐오네르 동무들!

위대한 나라 쏘련의 모범을 따라 우리 나라는 날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지상 락원으로 꽃피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 아저씨들은 지금 제 1차 5 개년 계획을 2년간에나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닫고 있습니다.

새해에 조선 로동당은 우리들에게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아동 궁전을 평양과 개성에 지어 줍니다. 벌써 일은 시작되였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들도 이 궁전에서 배우고 즐길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삐오네르 동무들!

날마다 우리는 김 일성 원수와 항일 유격 투사들이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였으며 조국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훌륭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배운 지식을 로동을 통하여 더 잘 익히고 있지요. 저마다 우리는 자기의 희망에 따라 크루쇼크에서 재간 있는 솜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크루쇼크에서는 벌써 10명의 소년단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선반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꼬마 5 개년 계획》 활동에 의하여 토끼를 기르며 파고철을 모으고 있지요.

지금 우리들이 기르고 있는 406 마리의 토끼는 한해 후에 가서는 32,800 마리로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삐오네르 동무들!

동무들과 우리는 비록 수천 수만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무들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1959년 2월 1일

조선 소년단 평양시 제3 중학교 대
소년단원 일동 올림

동무들! 새 학기 첫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학습과 생산 활동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는 각지 소년단원 동무들의 눈부신 활동 소식입니다. 그럼 나의 소식을 들어 보세요.

1. 여기는 문천 제 1중학교 쎄멘트 직장!

《야! 굉장한 소성로들이구나!》

《이건 우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건설한 석회로구, 저건 쎄멘트로야》.

《그래 이걸 모두 너희들의 힘으로 건설했니?》

《그럼. 처음엔 여러차례 실패도 했지만 이젠 문제없이 생산을 내고 있어!》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온 결과 이렇게 훌륭한 쎄멘트를 생산하게 되였지요.

2. 여기는 개성 제1 녀고중 대 소년단원들이 천을 짜내는 교마 직물 공장!

《애,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천을 짜기 시작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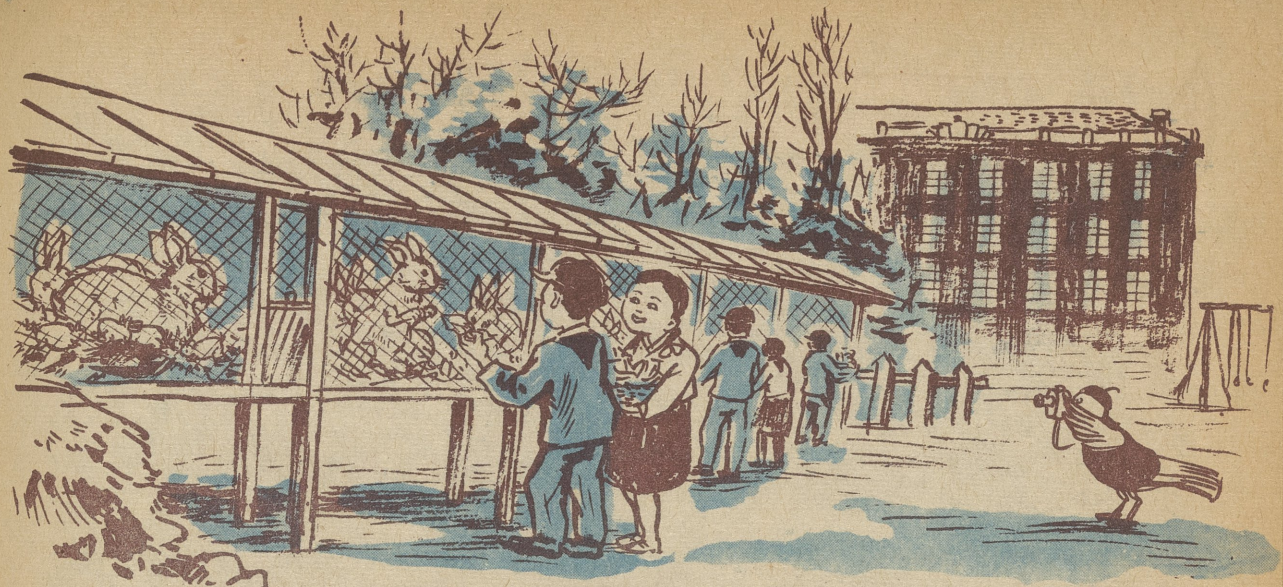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시작했어. 이건 우리 학교 섬유 생산 크루쇼크원들이 피마주'대에서 뽑아 낸 실이야!》

그들은 이렇게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피마주'대에서 섬유를 뽑아 내는데 성공했고 오늘은 훌륭한 천까지 짜내게 되였어요.

3. 수 많은 가축들이 자라고 있는 여기는 애원 중학교《교마 목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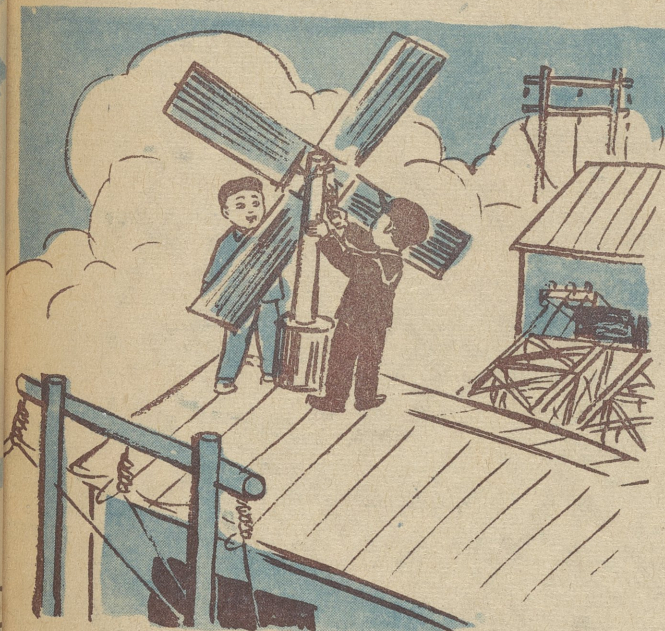
《참 훌륭한 <교마 목장>이구나!》

《우리 학교에선 이미 정전 직후부터 소, 돼지, 염소들을 비롯하여 숫한 가축들을 길러 왔단다. 이건 우리가 정성껏 사양 관리하는 <소년호 젖소>야》.

이 학교 어린 축산 기사들은 수 많은 가축들을 훌륭히 기르면서 조선소를 젖소로 개량하기 위하여 그의 사양 관리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나는 순천 제1 중학교 《교마 목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많은 토끼들을 어떻게 관리하니?》

《그건 문제없어! 우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300마리의 토끼를 기르면서 그의 생활과 습성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훌륭히 배웠으니깐. 올해에는 지금 있는 1,000마리의 토끼에서 3만마리까지 길러낼 계획이란다》.

그들은 올해에 375장의 피마잠에서 3톤의 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도 훌륭히 갖추고 있답니다.

5. 《우린 고성 제1 중학교 물리 크루쇼크원들인데 지금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참이란다.》

《훌륭한 교마 전기 기술자들이구나》.

《이젠 발전기 조립엔 자신이 생겼어!》

그들이 설치하는 풍력 발전기는 훌륭히 완공되여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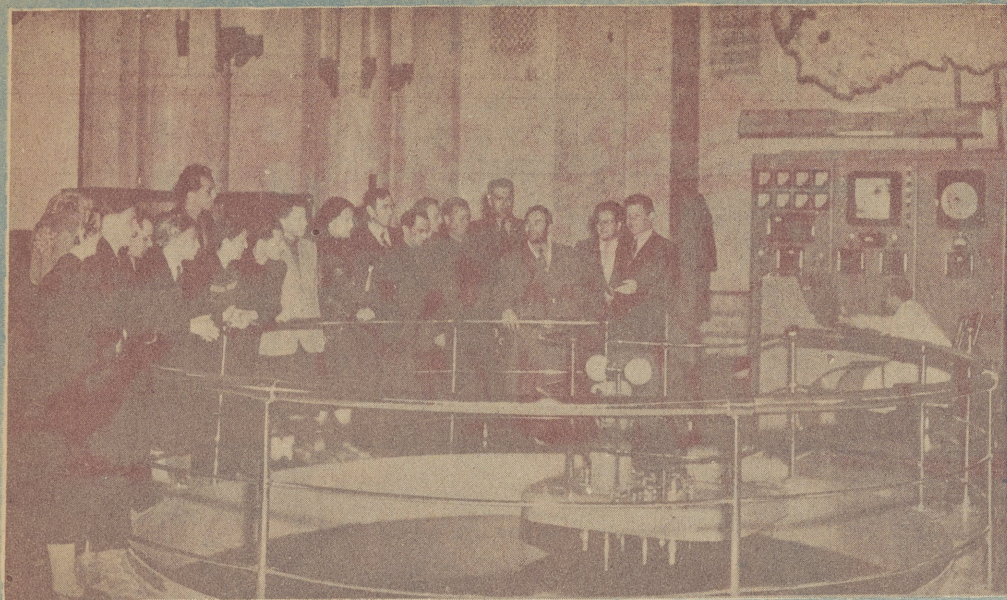
6 .《너희들은 이 눈 속에서 어떻게 파고철을 얻어 내니?》.

《머리만 쓰면 다 되는거야. 우리는 개울에 놓았던 철장들을 나무로 바꾸어 놓고 이렇게 많은 철재들을 얻어 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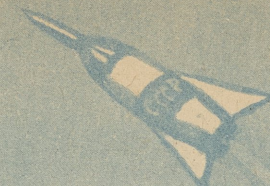
이처럼 송림시내 소년단원들은 철재 생산에 궐기한 제철소 아저씨들을 도와 겨울에도 계속 파고철 회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만세!

지난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차 대회에서는 쏘련에서 전면적 공산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가는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아래의 사진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류의 행복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는 쏘련의 눈부신 건설 모습과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게된다.

쏘련에서는 처음으로 원자력을 리용하여 전기를 일구는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원자력을 리용하여 전기를 일구는 원자 반응기 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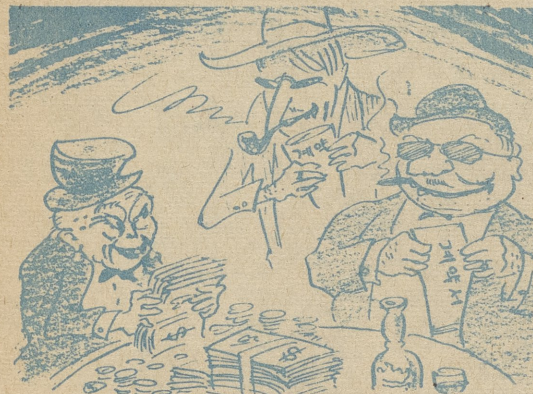
이 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을 리용하여 움직이도록 만든《레닌호》원자 쇄빙선입니다.

쏘련에서 처음 우주를 향해 로케트를 쏴 올린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 로케트에는 이런 기구가 실려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쏘련 어린이들은 여름이 오면 산과 들에서 바다와 호수'가에서 즐거운 야영 생활의 나날을 보내지요.

쏘련 어린이들은 장래 훌륭한 공산주의 일'군이 되기 위해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열심히 자기의 지식을 익히고 있답니다.

래일의 우주 려행을 준비하고 있는 쏘련 어린이 들은 지금 우주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팔려간 어린 "노예들"

안된다!

(1) 얼마전에 악독하고 간악한 리 승만이는 불쌍한 남반부의 고아들을 미국 농장 주인에게 팔아 먹기 위해 그들과 흥정을 하였다.

(2)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고아들은 이렇게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실리웠다.

(3) 고아들이 실리워간 곳은 남미주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였고 그들은 다시 농장주들의 손에 넘어 갔다.

동무들! 생각하여 보십시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동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 남쪽 땅에서 벌려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남쪽 땅에서는 갈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불행한 동포 형제들을 팔고 사는 흥정들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1월 22일 공화국 정부는 리 승만 역도들이 외국에 팔아 넘기려고 책동하는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전부 공화국 북반부에로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그처럼 불행의 구렁 속에 몰아 넣기를 일삼아 오던 리 승만 역도는 일찌기 107명이란 고아들을 남미주 캘리포니야주와 오레곤주의 농장주들에게 팔아 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 승만 역도는 이번 또다시 가엾은 1,176명의 고아들을 미국 농장주들에게 팔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글쎄 두살에서부터 여섯살까지의 철부지 아이들을......

우리들은 이미 미국 농장주들에게 팔려간 107명의 우리의 어린이들이 어떠한 학대와 멸시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리 승만 역도는 불쌍한 고아들을 팔아 넘기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늘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더는 헤여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4백 2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남반부 거리마다에 차고 넘치고 있으며 집도 부모도 다 잃은 수십만을 헤아리는 불행한 고아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떠 돌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였습니다.

더우기 지난 해 내각에서는 내각 결정 96호를 채택하여 남반부의 굶주리고 헐벗은 실업자들을 구원하며 또한 곤난한 처지의 남반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남반부의 수십만의 고아들을 전부 우리의 품에 받아 들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미 고아들을 맞을 준비까지도 다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국 정부는 일본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만 동포들도 공화국 품에 받아 들이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였습니까? 미 제국주의놈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은 우리의 이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끝끝내 가로 막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놈들은 이 불행한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구원할 대신에 오히려 미국놈들의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놈들의 이 책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미국놈들의 노예로 팔아 먹으려는 리 승만 역도의 흉칙스러운 책동을 반드시 깨뜨려 부시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놈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구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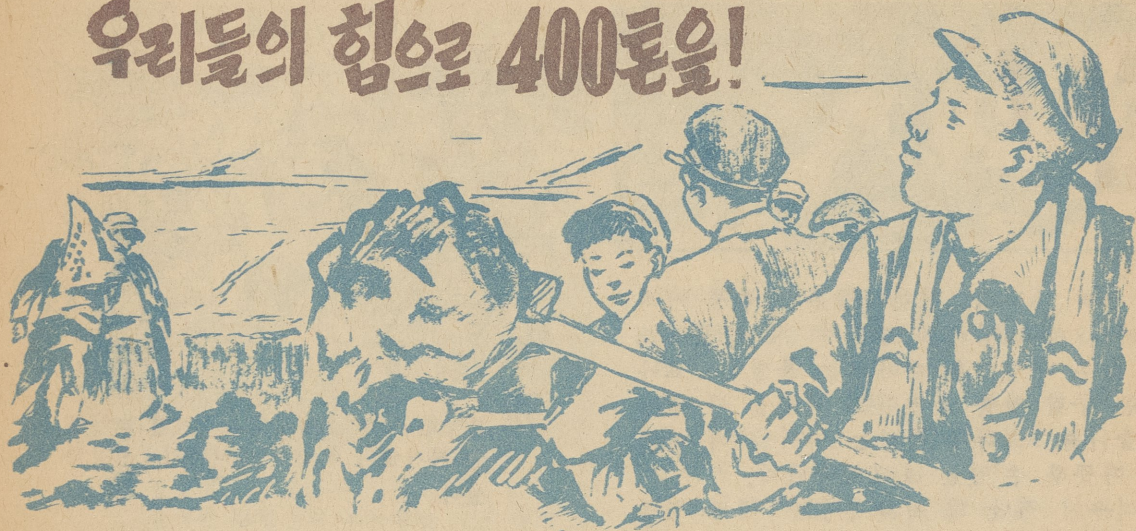
미제 원쑤놈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4) 잔악한 미국 농장주들은 어린 고아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였다.

(5) 고된 로동과 굶주림 속에서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시들어 갔고 몇몇 아이들은 억울하게도 죽어 갔다.

(6) 지금 미국으로 팔려간 아이들은 농장주의 혹독한 매질과 고된 로동에 기진하여 억울하게 쓸어져 가고 있다.

그림 백 인균

우리들의 힘으로 400톤을!

시험 포전 운영을 위한 분단 모임 날이였다. 모임에서는 무턱대고 시작하면 된다고 덤비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조합에서 해 놓은 다음에 본 받아서 하자고 자신을 못가지는 동무들도 있었다.

이런 의견들은 모두 시험 포전을 왜 만들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동무들이 하는 말이였다.

이날 모임에서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한 것은 정 일용의 말이였다.

동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 묵묵히 앉아 있던 정 일용이는 문득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지난 여름 실습 시간이였다. 실습에 취미를 못가진 일용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하였다. 그래 그는 일직을 서던 동무와 교대하여 교실에 혼자 남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는 책만 읽고 있었다.

이때 인남이가 달려 들어오며 《일용아 호미 가져 왔으면 좀 빌려 달라》 하고 소리쳤다. 일용이가 머뭇거리며 책을 접어 놓는 것을 본 인남이는 《응! 너 아프다더니 책만 읽고 있구나》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일용이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면서도 《실습 안하구두 4점만 맞았는데야 어쨌단 말이냐》하고 변명 비슷히 말하였다.

묵묵히 서서 생각하던 인남이는 《응 너야 공부를 잘 하니까 일없긴해, 그렇지만 나야 공부 못하니까 일이라두 잘 해야지, 네 호미나 좀 빌려 주렴》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용이는 이날 호미조차 가지고 오지 않아 빌려 주지 못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식물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파종할 때는 어떤 비료를 주며 성장기에는 어떤 것을 주는가?》고 일용이에게 질문하였다. 일용이는 지난 중간 실력 시험때 외우던 생각이 났으나 얼핏 생각 나지 않아 머뭇 거렸다.

선생님은 《실습지에서 비료를 쓰던 것을 생각해 보렴!》하고 이깨워 주었다. 그러나 실습 시간에 매번 빠지려고만 한 일용이는 교과서를 암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앉은 동무들은 킬킬대였다. 결국 일용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학과 시간을 끝내면서 이야기하시였다.

일용이는 실습에 잘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지식도 쓸모없이 되였다고 말씀하셨고 인남이는 일용이와는 반대로 학과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는 무턱대고 일하여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실지 자기 학습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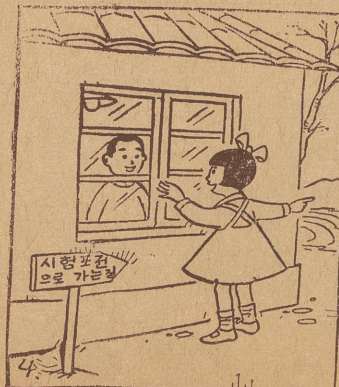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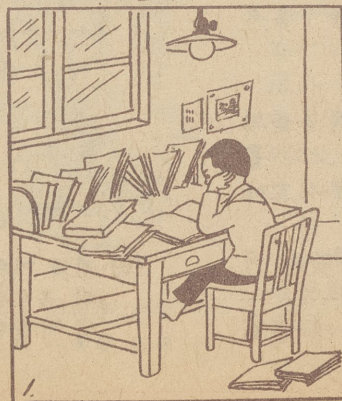
사실 인남이는 실습지 도마도에 거름을 되는 대로 주어 죽인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인남이가 학과에는 노력하지 않고 일만 잘 하면 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 때문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난 동무들은 학과 학습과 실습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서로들 이야기하였다.

이때 선생님의 말씀을 깊히 깨달은 일용이는 그후부터 배운 지식을 실지 실습에 리용하여 로력한 결과 제일 훌륭하게 도마도를 키워낼 수 있었고 학년말에는 농산 크루쇼크원이 되였다. 분단에서는 꼬마 미츄린이란 말까지 듣게 되였다.

이렇게 학습과 생산을 잘 결부시켜 로력한 결과는 많고도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계속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즉 아직도 일부 동무들 가운데는 지난날 자기와 인남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참말이지 마을 조합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와 지난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한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700만톤의 알곡 생산에 나섰다. 즉 새로운 농산법인 같은 땅에서 그전의 몇배의 수확을 거두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밭을 깊이 갈고 배게 심고 비료를 많이 내여 농사를 지으면 금년에는 영낙 없이 작년보다 네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항상 앞날의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들은 특히 새로운 농산법을 직접 해보며 학과 학습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일용이는 《시험포전 운영은 장차 공산주의 농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준비 시켜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과 학습에 절대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꼭해야 합니다. 》하고 토론을 끝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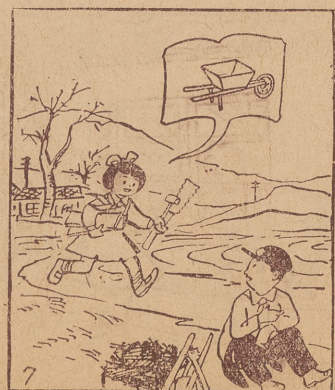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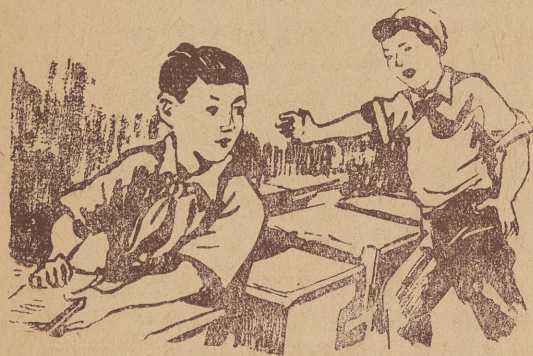
일용이의 토론을 들은 동무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면서 어느 분단보다 더 앞장서서 정당 4 00톤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

을 세우자고 결의하였다.

첫 사업

분단에서는 학교 실습지 논에서 90평을 시험 포전으로 받았다.

분단 동무들은 같은 땅에서도 수확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갈고 많은 비료를 내며 배게 심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책에서 배웠고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비료를 얼마나 주어야하며 밭을 얼마나 깊이 갈아야 하며 얼마나 배게 심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그래 분단 위원회에서는 첫 사업으로 크르쇼크원들을 선발하여 식물에 관한 공부를 더 꾸준히 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영농법을 연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험 포전 계획을 학과목과 밀접히 련결시켜 세우도록 준비하였다.

즉 자기들의 식물 학과에서 배운 《종자와 그의 발아》《토양에서 섭취하는 식물의 영양》《토양과 식물》《벼의 생활 조건》 등 시험 포전을 운영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영농 계획과 함께 실험할 계획도 세우기로 하였다. 그리고 영농 일지를 만들어 배운 것을 차례로 빠짐 없이 적어 두기로 하였다.

그다음 이들은 우선 많은 비료를 모으는 일에 착수하였다.

비료산

분단 모임에서 결의한 대로 정당 400톤의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분단의 시험 포전 90평에서 13톤의 수확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분단에서는 여름철에 풀을 베여 퇴비를 만든 것이 약 80톤 가량 있기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였다. 여러가지 성분의 비료를 더 마련해야 하였다. 때문에 분단에서는 반 별로 경쟁하여 비료산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 우선 식물과에서 배운 비료의 종류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를 실습하는 겸 비료를 모으기 시작 하였다. 퇴비를 만들거나 인분을 모으는 일을 중요하게 하면서 개바닥 흙을 파내기도 하고 뙤를 떠서 뒤져 놓기도 하며 학교 가축사에서도 많은 비료를 얻기 위해 깃을 자주 갈아주는등 모든 방·법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논을 갈기 전까지 매 반마다에 큰 비료산이 만들어 졌다.

논 갈 이

이들은 논 갈이를 늦게야 시작하였다. 비료 준비를 위해 오랜 날을 보낸 결과 이들은 논 갈이를 서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을 갈기 위해 나서던 날은 눈이 내렸다. 그러나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땅이 얼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자고 신이 났다.

이들은 논을 1메터이상 깊이 갈고 10센치 메터에 한번씩 비료와 흙을 섞어 메웠다.

이리하여 90평의 논에 100톤의 비료를 내였다. 나머지 100톤은 봄에 내기로 하였다.

시험 포전을 시작하는 논 갈이 작업에서 토양과 비료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 익혔다.

앞으로 남은 일을 위해

정당 400톤의 벼를 거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논을 갈고 비료를 준비하는 일은 그저 로력만 들이면 될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랭상모를 키우고 이앙을 하고 벼를 추수 할 때까지는 여러가지 난관들과 부딛치게 될 것이다.

그래 분단에서는 우선 경험 없이 처음 하는 일이니 4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였다.

그래 이들은 우선 시험 포전을 훌륭히 가꾸어 온 전 성복 영웅 아저씨의 협동 조합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험포전 준비를 훌륭히 하고 있는 민청 형님들을 찾아가서 의문나는 것을 해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향 마을 송학리 협동 조합 아저씨들을 방문하여 평당 360포기 이상의 모를 꽂아야 한다는 것과 바람이 잘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랑을 내여 배게 심은 벼가 썩지 않게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통풍을 위한 기구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제 로력 영웅 전 성복 아저씨의 조합 견학을 끝내면 분단의 시험 포전 계획은 완성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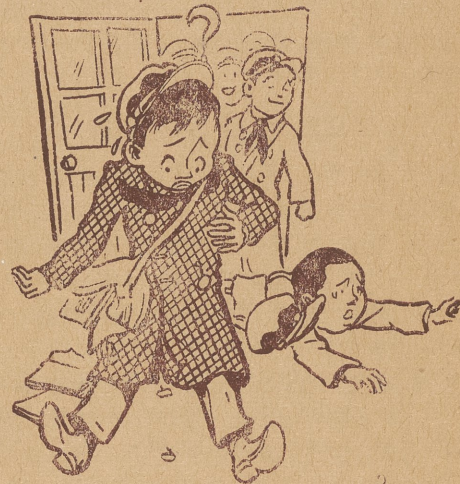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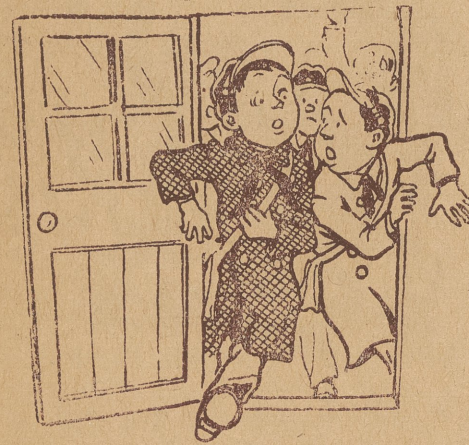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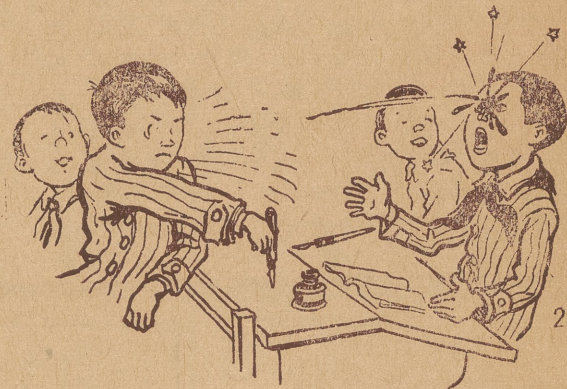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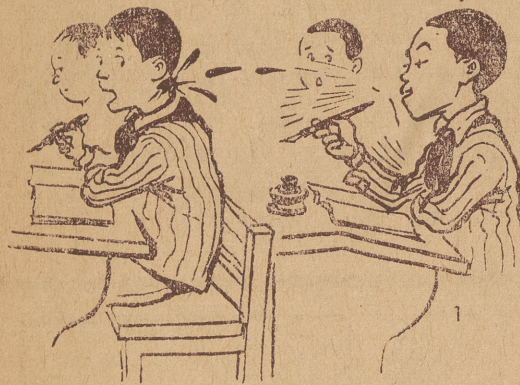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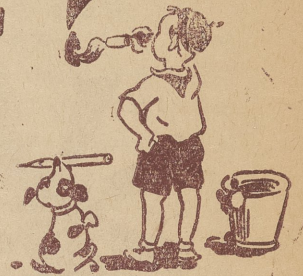
이곳 학교 소년단원들은 시험 포전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웠고 훌륭한 기술을 익히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동 로동을 통하여 로동이 얼마나 즐겁고 영예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였고 나아가서는 분단으로 하여금 더욱 화목하고 더욱 단결된 집단으로 되게 하였다.

평남 안주 제 2중학교 13분단에서

본사 기자 **최 옥선**

그림 현 재 덕

이런 아이를 어떻게 생각 하나요?

그 결과

얼굴에 씌여진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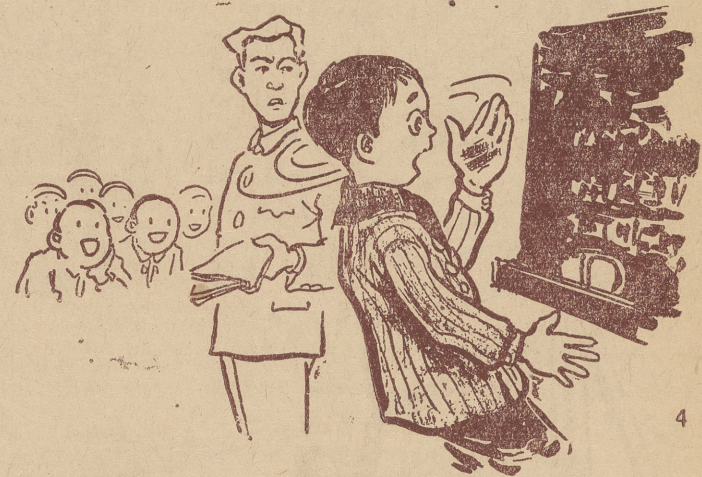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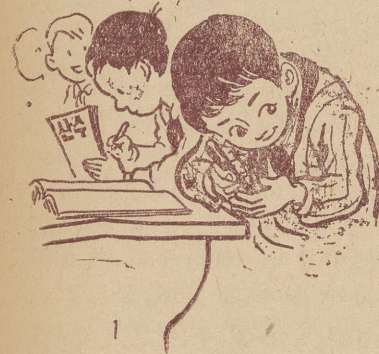



그림 림 영 환
리 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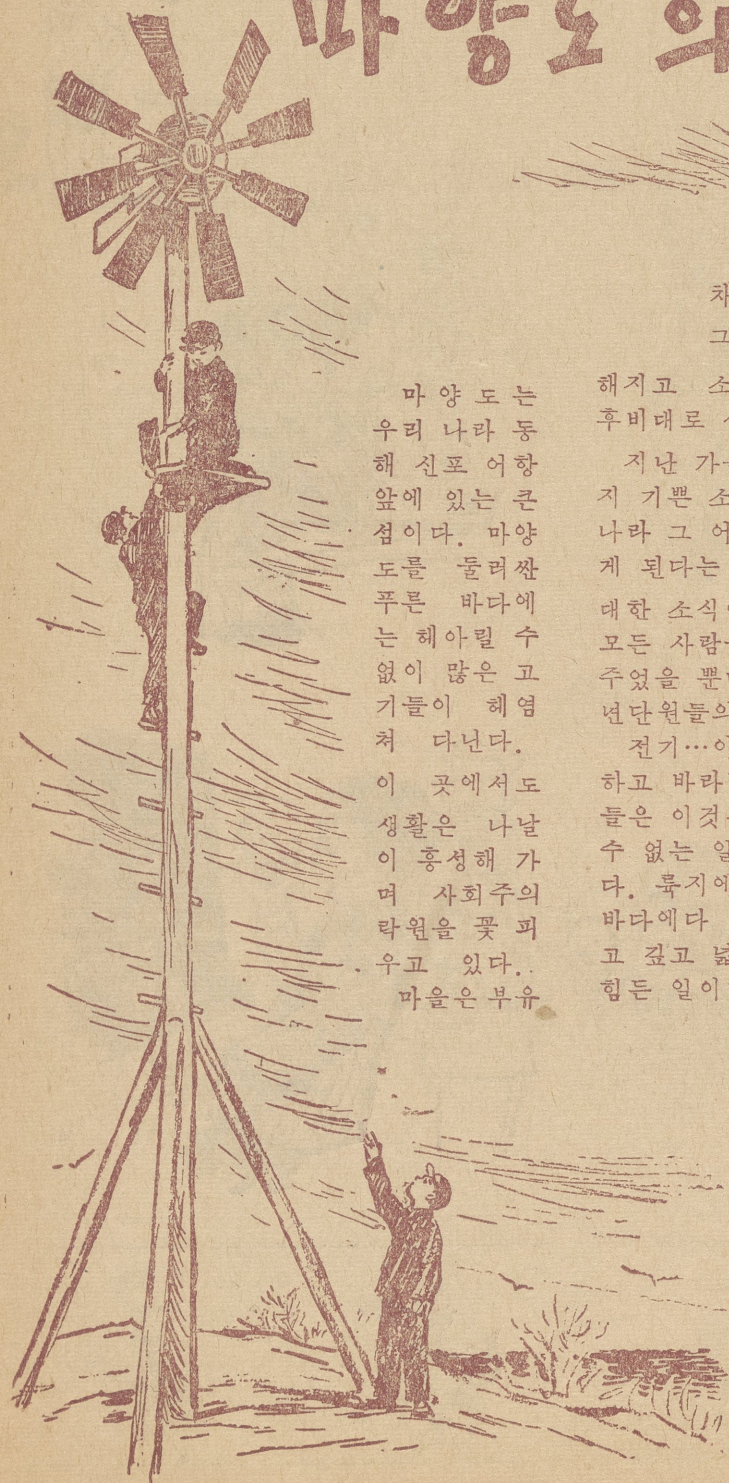
마양도의 불빛

채 규 철

그림 림 영 환

마양도는 우리 나라 동해 신포 어항 앞에 있는 큰 섬이다. 마양도를 둘러싼 푸른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기들이 헤염쳐 다닌다.

이 곳에서도 생활은 나날이 흥성해 가며 사회주의 락원을 꽃 피우고 있다.

마을은 부유해지고 소년들은 장차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지난 가을이였다. 이 섬에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 나라 그 어데든지 휘황한 전기'불이 켜지게 된다는 조선 로동당의 전기화 정책에 대한 소식이였다. 이 소식은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마양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몹시 흥분케 하였다.

전기…이것은 이곳 사람들이 대대로 원하고 바라던 큰 희망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은 자체의 힘 가지고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륙지에서 전기를 끌어 들이자고 해도 바다에다 전선대를 꽂을 수도 없는 일이고 깊고 넓은 바다 밑으로 전선을 끌기도 힘든 일이다. 그래 이곳 섬 사람들은 명태간유'불을 켜고 살면서 일생 그렇게 살아야 하나부다 하고 생각해 왔다.

이곳 소년단원들은 학과에서 전기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우리 섬에서도 전기'불을 볼 수 없을가?》 하고 생각해 왔다. 이러던 중 전기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였고 또한 소년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각지 소년단원들도 자기들의 학과 학습을 더 잘 익히기 위해 꼬마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알게되였다.

이들은 물리 크루쇼크실에 모여 앉아 날마다 전기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수력 발전소를 만들가? 풍력 발전소를 만들가?》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들을 하였다. 그러나 개울물도 없는 이 섬에서 수력 발전소 건설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래 소년들은 항상 세차게 불어 오는 바다바람을 리용한다면 풍력 발전소는 만들수 있겠다고 의논들이 맞았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의 의견은 곧 물리 크루쇼크를 지도하는 민 병호 선생님에게 제기되였고 이는 다시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도 알려지게 되였다.

선생님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 하면서 학교에서도 힘껏 도와 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 동조, 김 종률, 한 영일 등 기타 물리 크루쇼크원들을 중심으로 한 발전소 건설 공사는 시작되였다.

크루쇼크원들은 민 병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를 만들었고 발전소 공사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는 실험 실습 계획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였다.

먼저 발전소 설비에 필요한 재료를 모우가 시작하였다. 바람개비를 만드는데 쓸 양철, 바람개비를 달아 놓을 재목, 피대 대용으로 사용할 고무줄 기타 목수 도구, 전기'줄 등 여러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였다. 이 재료를 얻는 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전기'불을 일쿠어 보자고 신바람이 난 동무들은 매일 같이 열성스럽게 뛰여 다니면서 재료들을 구하여 왔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발전소 공사에서 제일 귀중한 발전기였다. 그것만은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동무들은 안타까워 하였다. 그들은 생각하다 못하여 이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였다.

《발전기만은 이 섬에서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포에 나가면 구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크루쇼크원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민 병호 선생님은 문득 《오 내가 공부할 때 쓰던 0.6볼트 발전기가 있는데 우선 그것으로 시험해 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크루쇼크원들은 너무 좋아 《모든 준비는 다 되였다.》고 함성을 올렸다.

이튿날부터 공사는 시작되였다. 어떤 동무들은 곡괭이로 땅을 파서 탑을 세우고 어떤 동무들은 양철을 짤라 바람개비를 만들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얼굴 마다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흥분, 전기'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려 있었다.

이들이 바람개비를 다 만들었을 때 또 하나의 새 걱정이 생겼다. 《한 방향으로 바람개비를 달아매 놓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게되여 전기'불을 못보게 될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였다.

이들은 다시 크루쇼크 지도원 민 선생님을 찾아갔다.

동무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바람개비 심대를 바람 방향에 따라 자유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야지……그것이 왜 그렇게 되여야 하는지 모르겠느냐?…》하고 물으셨다. 동무들은 얼핏 생각이 나지 않아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배운 것을 리용하지 않고 있다. 바람이 직각으로 바람채에 떨어지면 바람개비채를 밀면서 바퀴가 움직이게 되고 예각으로 바람을 맞을 때는 바람이 바람채에서 미끄러지게 된다. 이것은 력학에 있어서…》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동무들은 저마끔 《응 알았다. 알았다. 힘의 분해, 힘의 분해》하고 교과서의 한페지를 생각하면서 떠들었다.

이리하여 소년단원들은 물리에서 배운 력학의 법칙을 리용하여 바람개비를 바람의 방향을 따라 자유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닭았다.

그러나 실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런 가운데서 난관은 또 생겼다.

바람개비가 바람에 따라 자유로 움직이게 한다 해도 전기'불을 일상적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면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아 전기를 일쿨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번 보다도 더 큰 곤난이였으나

선생님에게 묻지 않기로 하였다. 자기들 힘으로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에 동무들은 《우리는 물리에서 축전지를 배우지 않았니…그것을 응용하면 해결된다.》고 기뻐서 떠들었다.

발전소 공사는 이렇게 동무들의 지식을 익혀 주면서 빨리 진행되였다.

그러나 바람개비를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자유로 돌게 장치하고 축전지를 장치하는 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렵고도 힘든 일이였다. 동무들은 애써하다가 실패되는 때면 실망하기도 하고 락심하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발전소 공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어느날 신포 군당 위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군 지도 일'군들과 송배전부 일'군들이 마양도에 건너 오시게 되였다. 이때 리 인민 위원회에서는 이미 군의 지도하에 마양도를 전기화할 데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군 지도 간부 선생님들은 소년단원들의 발기를 매우 칭찬하시면서 어른들의 힘을 합하여 마양도 전체에 불을 켤수 있는 큰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시였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송배전부 전공 아저씨들과 트레스트 로동자 아저씨들이 발전소 공사를 위해 마양도에 오시였다. 이 아저씨들은 마양도의 풍력 발전소 발기자들인 소년단원들을 만나 이때까지의 경험과 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아저씨들은 소년단원들의 말을 듣고 기특해 하시며 《같이 연구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발전소 공사는 마양도를 들끓게 하였다. 아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사에 일떠 나섰다. 18메터가 넘는 탑이 세워지고 발전기가 운반되였다. 뒤미쳐 직경 2메터가 넘는 바람개비가 산꼭대기에 운반되였다.

협동 조합원들과 소년단원들은 배전부 아저씨들을 도와 바침판 우에 발전기를 끌어 올렸다.

이 기간 크루쇼크원들은 배전부 아저씨들에게서 애로로 되고 있던 바람개비의 회전판 조절판을 만드는 법과 축전지에 대한 것을 배웠던 것이다.

마양도에 전기가 오는날 저녁이였다. 풍력 발전소 주위에는 이곳 소년단원들과 마을 사람들로 가득찼다.

크루쇼크원들이 바람개비에 맨 와이야를 당기자 바람개비는 빙그르르 꼬리를 돌리며 세차게 돌아갔다.

바람개비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과 소년단원들은 함성을 올렸다.

학교와 조합 사무실, 가정들에 일시에 전기'불이 켜졌다.

《만세!》 소년단원들은 기쁨에 못이겨 만세를 불렀다.

《학생 동무들의 발기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전공 아저씨들이 소년단원들에게 다아오며 말하였다.

크루쇼크원인 한 영일, 김 종률, 주 동조 동무들은 전공 아저씨들에게 매달리며 《아저씨!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직접 일하면서 열심히 배워 아저씨들과 같은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익환…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그래 너희들은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왔니?

익환…어려운 문제야요.

척척 할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척척 대답할테니 어서 물어봐라.

익환…그럼 저 하나 묻겠어요. 저는 양덕 초등 학원 초급반 1 학년 김 익환이얘요.

척척 할아버지…

그래 무슨 문제냐?

익환…샘물은 왜 여름엔 차고 겨울엔 차지 않나요?.

척척 할아버지

허허. 그런게 다 어려운 질문이라구? 그건 대체 두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게다. 첫째 주요한 원인은 바깥 기온의 차이에 달려 있고 둘째는 지열의 영향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란다.

익환…바깥 기온의 차이에 달리다니요?

척척 할아버지…

글쎄 들어봐라. 여름의 기온은 보통 섭시 20도에서 30도 이상 높아지며 겨울엔 령하 30도 혹은 그 이상 내려가는 수가 흔히 있단다. 그러니 이 바깥 기온의 차이에 따라 흐르는 강물은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얼게까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샘물은 땅 속을 흐르다 솟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것 없이 바깥 기온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단다. 때문에 샘물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자체 온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름에는 바깥 기온이 몹시 덥기 때문에 우리가 찬 것으로 느끼며 겨울엔 반대로 바깥 기온이 몹시 차기 때문에 더운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익환…그럴듯 한데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열의 영향은 또 어떻게 관계되나요?

척척 할아버지…

응, 이제 그걸 설명해 주지. 지구의 표면을 둘러 싸고 있는 대기층은 계절에 따라 열과 랭기들을 항상 지표면에 전달하게 된다. 이 대기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열과 랭기들은 지표면을 덥히거나 또는 식히면서 보통 땅속 10여 메터의 깊이까지 전달된다.

그런데 이 열과 랭기들이 지표면을 통하여 땅속에 전달되는 과정은 극히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땅속 10여 메터 깊이에 까지 열이 전달 되자면 보통 5~6개월이 걸리게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지표면에서 받

은 열이 지하수가 흐르는 땅속 깊이에까지 이르자면 보통 겨울이 되는 때에라야 전달되며 겨울에 받은 랭기들은 반대로 여름이 되는 때에라야 전달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되는 열과 랭기 관계로 지하수의 온도에는 약간한 변화가 생기게 된단다.

의환…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공호 속이나 갱도 안이 겨울엔 덥고 여름엔 선선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척척 할아버지…

그렇단다. 겨울에 방공호나 갱도 안은 바깥 추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가 지표면에서 전달되여 온 열이 미치기 때문에 더워지며 여름은 반대로 바깥 더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지표면에서 전달되여 온 랭기가 미치기 때문에 선선해지는 것이다.

의환…할아버지 잘알았어요. 이젠 나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척척 할아버지…

그럼 됐어, 다음 또 물어 봐라.

성남…할아버지 제가 한가지 묻겠어요. 저는 강동 제 3 중학교 2 학년 주 성남이애요.

척척 할아버지…

그래 넌 또 무슨 문제이냐?

성남… 저녁 때 노을은 왜 생기나요?.

척척 할아버지…

그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구나. 저녁 때의 해 즉 지는 해'빛은 정오 때보다 매우 두터운 공기층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에 들어온다. 이 도중에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광선 (자색, 남색, 하늘색 등)들은 이 두터운 공기층을 다뚫지 못하고 도중에 멈추어지며 비교적 파장이 긴 광선 (황색, 적색, 고등색 등)들만이 대기층을 뚫고 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해가 지는 쪽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들인 듯한 노을이 비치게 된단다.

성남…알겠어요. 그렇게 쉬운걸 몰랐댔군요.

척척 할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이 힘이란다.

기섭…할아버지 저도 한가지 묻겠어요. 저는 신창군 만춘 인민 학교 4학년 윤 기섭이 애요.

바다에는 강물이 계속 흘러 드는데 왜 바다'물의 염분은 언제나 약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짜나요?.

척척 할아버지…

그런 쉬운 것도 몰라? 그럼 먼저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강물이 계속 흘러드는 바다'물이 왜 차고 넘치지 않고 항상 그만한 량대로 있는지 아느냐?

기섭…그야 바다의 수면에서 계속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지요뭐.

척척 할아버지…

옳다. 그러면 간단히 리해되지.

바다에 흘러 드는 강물은 희박하기는 하지만 역시 여러가지 염분이 포함되여있단다. 사람들이 이 염분을 맛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량이 너무 적기때문이다. 그런데 바다'물 표면에서는 끊임 없이 증발이 진행되고 염분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바다'물의 염분은 희박해지지 않는 단다.

영식…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묻겠어요. 저는 평양 제 4 중 초급반 1 학년 박 영식이애요.

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왜 떠는 것처럼 반짝 거리나요?.

척척 할아버지…

그것은 별에서 나오는 빛이 공기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되기 때문이다.

별에서 나오는 빛은 공기층에서 반드시 굴절되며 도중에 공기의 흐름이 변화하면 빛의 굴절 상태도 끊임 없이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별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번 굴절 되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 오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치 별이 떠는것처럼 보이며 그 빛이 반짝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영식…정말 할아버진 박사이군요. 이제 다음 달엔 더 힘든 문제들을 묻게 될거 애요.

척척 할아버지…

글쎄 어떤 문제건 물어 보래두, 뭐든지 다 대답할게…

한시간에 책을 100만 페지나 읽다니?

동무들! 한시간에 책을 100만 페지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 보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글쎄 쏘련에서 만들고 있는 통보 기계에는 한 시간에 책을 100만 페지나 읽을 수 있게 하는 전자 《기억》장치가 되여 있다지 않아요. 그러니 이 기계는 모르는 것이 없겠지요. 장차 이 기계는 독특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독자와 도서관 사이에는 도서를 통하여 기계와 련결되는 데 독자들은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자동 전화 번호를 돌리듯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기계는 곧 필요한 자료를 골라서 그것을 분석한 후 해답을 텔레비죤 장치에 의해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독자들은 또 어떤 책에서 요구하는 페지의 문장을 텔레비죤 영상막에서 읽을 수 있지요.

그리고 외국어로 된 자료는 특수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번역해서 알리게 되여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편리한 기계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 손》

사람이 생각하는대로 움직이는《기계 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 하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수 천도의 높은 열을 내는 용광로 곁에서 일하는 용해공 아저씨들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으며 손이 불구된 사람의 불행도 덜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꿈이 아닙니다.

얼마전 모쓰크바에서는 이런《기계 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뵈여 주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기계 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사람의 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계손》은 두뇌에서 신호가 올때 근육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전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특수한 접수기를 팔에 채우고 오직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에따라《기계손》은 그대로 동작합니다.

얼음판 우에서의 유희

지금은 즐거운 겨울이다. 모두다 밖으로 달려나가자! 얼마나 재미 있는 놀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튼튼하고 건강한 몸 이것은 귀중한 보배이다.

동무들! 얼음판으로 나가자!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얼음판 우에서의 놀음을 신나게 놀아보자.

△ 선을 디디지 말고 달리기

출발점에서 두 동무가 달린다. 얼마 가면 활주로를 따라 푸른선이 그어져 있다.

이 선 그은데까지 이르면 속도를 낮추고 선을 밟지 말고 앞으로 나간다. 선 끝까지 먼저 도착한 동무가 이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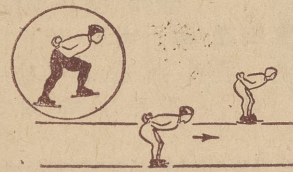



그림 1

△ 대문으로 빠져 나가기 (1)

3~4개의 대문을 만들고 그 밑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빨리 빠져 나간다.

대문을 두줄로 만들면 계주를 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 사이'길 놀음

그림 3

사이'길 놀음은 그림 3에 표시되여 있다. 사이'길을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사이'길을 만드는 동무들은 천천히 움직여 오고 다른 동무들은 한줄로 그를 마주 향해 가서 사이'길을 넘어 지난다.

△대문으로 빠져 나가기 (2)

그림 4

그림 4와 같은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문을 지난 다음(문을 넘어 뜨리지 않고) 다리를 완전히 편다.

이와 같이 규정대로 자세를 바로 가지고 반복한 동무가 이긴 것으로 된다.

잘되면 이번에는 한발을 깡충 들고 다른 한 발로만 문을 지나는 유희를 해보자 아까 보다는 좀 힘들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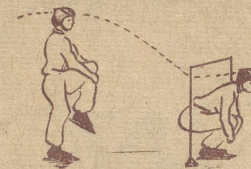



그림 5

△ 《뱀 놀음》

막대기를 여덟개 세워 놓고 넘어뜨리지 말고 뱀처럼 구불구불 빨리 빠져 나가는 계주다 (그림 6)

이 유희를 잘 하자면 빨리 돌아 가기를 훌륭히 해야 한다.

그림 7을 보면서 도는 법을 익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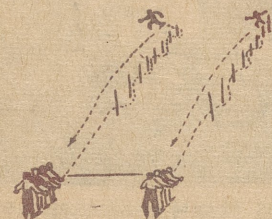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7

△뒤로 지치기

스케트를 평행으로 세우고 무릎을 절반 굽히고 탄력있게 왼편으로 돌린다.

그러면 왼쪽 스케트는 바깥 날이 서고 오른쪽은 안쪽 날이 서며 스케트 뒤축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다리를 가볍게 굽히고 스케트를 얼음 우에 누르고 뒤로 움직인다 (그림 8)

이번에는 다시 반대 방향인 오른 쪽으로 이상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뒤로 지쳐 나간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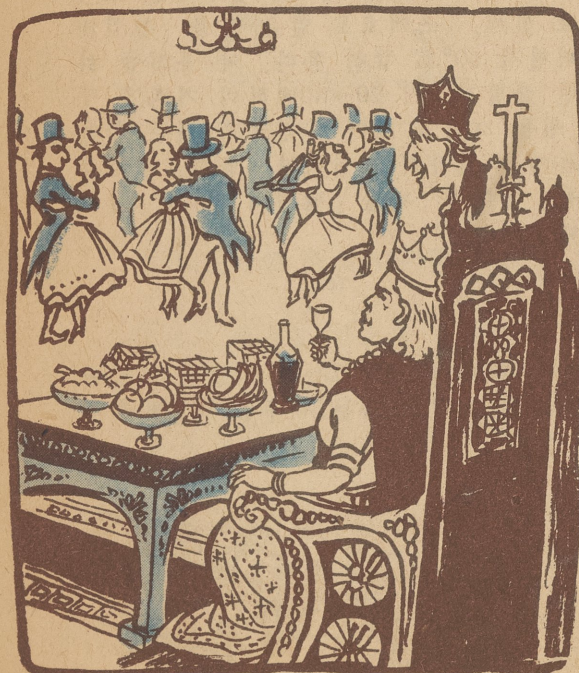
△ 멈추기 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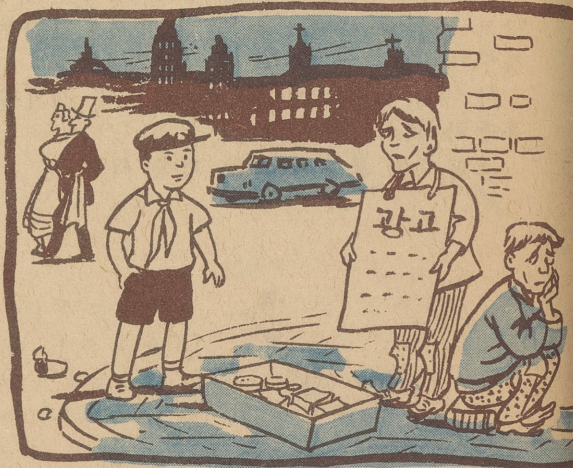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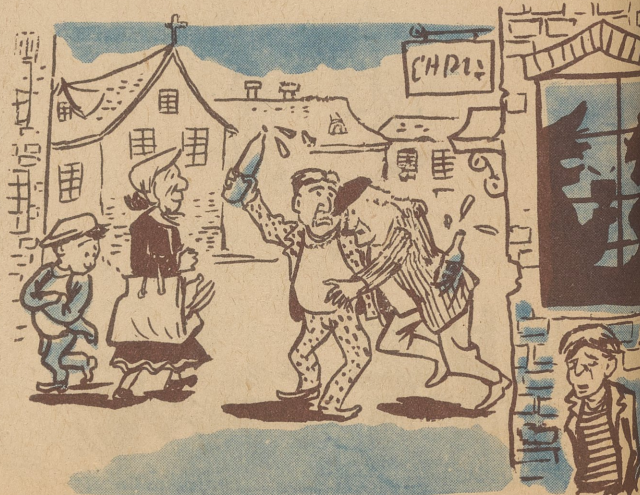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9에서는 《보습식》 멈추기를 보여주고 있다. 스케트로 얼음 우를 힘있게 디디면서 90°로 급히 돈다. 이 유희를 하려면 출발점에서 20~30메터의 거리에 푸른 원을 그리고 거기에 천으로 만든 줄을 놓는다. 원까지 도달하면 급히 멈추고 줄을 집어든 다음 날쌔게 다시 돌아 온다.

이상 소개한 재미있는 유희들을 통하여 동무들은 스케트 타는 재주를 더 잘 익힐 수 있다.

로케트려행 (6)

1. 동무들! 제국주의 나라 영국을 아세요? 지도를 펼치고 아이슬랜드 남쪽 섬나라를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영국 땅입니다.

2. 여기는 이 나라 녀왕 《엘리자베스》의 궁전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의 떼 욱실거리는데 녀왕은 매일 같이 이런 큰 잔치만 베푼대요.

3. 이것보세요. 학교에서까지 전쟁 소동 바람에 아이들은 막 실증이난 모양이예요. 선생이 지껄여대는 말에도 아이들은 그저 졸고 있거나 장난만 하고 있지 않아요.

4. 《얘, 넌 학교에 다니지 않니?》
《학교가 다 뭐냐. 먹기 위해 이렇게 광고판을 메고 다닌단다.》

5. 이곳이 바로《문명한》 나라라고 뽐내는 영국의 수도 런던 거리의 뒤'골목 풍경입니다.

6. 스코틀랜드의 던디 거리에서 였지요.
《아저씨들은 왜 이러구 있어요?》
《망할놈의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모두들 쫓겨났단다》.

7. 이 불쌍한 소년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이곳 브르드소드 탄광에서 일하다 굴이 무너져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애요.

8. 《아저씬 이 공장에서 일하세요?》
《그렇단다. 넌 어데서 온 아이냐?》
《조선에서 왔어요》.
《오! 조선— 참 귀중한 손님이구나. 우리 영국 로동자들은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 인민들을 항상 존경하고 있단다》.

9. 탄광 로동자들은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더는 참지 못하고 이처럼 용감한 싸움에 일떠나서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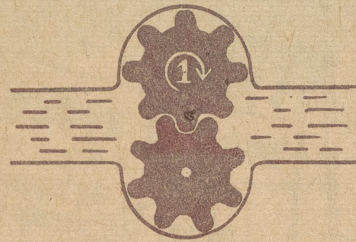
10. 블랙번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 같이 《원자 무기 시험을 즉시 중지하라!》《수소탄을 실은 미국 비행기들이 영국 상공을 날지 못하게 하라!》고 웨치며 일대 시위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남 현주

1. 물은 어느쪽으로 흐를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개의 치차가 들어 있는 관에 물이 들어 있다.

그런데 치차 1은 시계 바늘이 돌아 가는 방향으로 회전한다.

물은 어느쪽으로 흐르게 될가? 그 리유는 무엇일가?

2. 몇마리나 될가?

어미 토끼는 한달에 한번씩 새끼를 낳는데 새끼 토끼는 나서 3개월이 지나 또 새끼를 가지게 된다.

어미토끼가 한번에 5마리의 암토끼를 낳는다면 어미토끼 한마리로부터 계속 번식되는 토끼는 1년에 모두 몇마리나 될가?

12호 현상 문제 답

첫째 기대에서 김 동무가 먼저 20일간 계속 실습하는 동안 둘째 기대에서는 리 동무가 10일간만 실습하고 박 동무에게 넘깁니다.

박 동무는 리 동무로부터 넘겨 받은 둘째 기대에서 나머지 20일간 실습하고 리 동무는 다시 김 동무가 일을 끝낸 첫째 기대에서 나머지 10일간 실습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 선 자

함 북 도	무산 제2 중학교	곽 칠국
함 북 도	길주 제2 중학교	허 영수
함 남 도	광천군 금송 중학교	김 금옥
함 남 도	신창 제6 중학교	한 규찬
평 북 도	신의주 녀고중(초급반)	장 광남
평 북 도	대관 고중(초급반)	장 두천
평 남 도	순안 제7 중학교	김 상원
평 남 도	회창 고중(초급반)	신 재철
황 북 도	곡산군 문양 인민 학교	신 춘기
황 북 도	평산군 기탄 중학교	류 승호
황 남 도	안악군 금강 중학교	안 춘선
황 남 도	송화 제4 중학교	최 보연
자 강 도	위원군 밀산 중학교 (인민반)	리 명주
자 강 도	초산군 련풍 중학교	김 영희
량 강 도	풍서 제1 중학교	김 영진
량 강 도	갑산 고중(초급반)	윤 용숙
강 원 도	천내 고중(초급반)	강 명우
강 원 도	평강군 평강 중학교	김 싱초
평 양	제2 고중(초급반)	리 세운
개성지구	관문 고중(초급반)	김 종인
개 성 시	사직 중학교	리 승모

편집 위원 김 학연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9년 2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2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2호 (총 112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0168 값 25 전 150,000부 발행